

지역사회 한국어 통번역사 교육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 : 현장 통번역사의 FGI 분석을 중심으로

임형재* · 황완**

요약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어 통번역 교육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통번역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양적·질적 연구를 통해, 한국 내 지역사회 통번역사를 위한 교육과정 및 능력 인증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지역사회 통번역사는 여전히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번역 능력 평가에서도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개념 정립부터 교육과 평가 체계, 역량 강화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AI 통번역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에 AI 활용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피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어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다양한 언어권 통번역사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교육 운영 모델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통번역, 지역사회 통번역사, 통번역 교육과정, 통번역 평가

본 연구는 2025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제1저자, 한국외국어대, KFLT전공, 교수, hylim@hufs.ac.kr

**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 KFLT전공, 박사과정, oanh0420@naver.com

1. 서론

글로벌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한국 사회 또한 다문화·다언어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주민의 정착은 한국이 단일 민족, 단일 언어 국가라는 전통적인 인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¹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인구 구성의 다변화를 넘어, 언어, 문화, 가치관, 사고방식 등 복합적인 차원의 융합과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국제결혼의 증가와 다문화 가족의 확대는 사회 각 부문에서 언어적 소통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임형재 외 2023: 284).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번역사의 역할은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문화적 중재자이자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핵심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지역사회에서는 ‘통번역사’²라는 전문 직종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신 ‘통번역지원사’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은 통번역사의 전문성과 고유한 기능을 축소하거나 보조적 역할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다문화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 사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통번역사’로 명확히 정의하고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공공 서비스, 법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번역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³ 이는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데 필수

1 2023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등록 외국인 중 중국인이 942,395명(37.58%)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이 271,712명(10.7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순으로 이어졌으며, 기타 국적은 40.73%를 차지했다. 중국과 베트남 국적자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이며, 한국 내 주요 외국인 집단임을 보여준다. 한편 OECD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으면 다문화 국가로 분류되며, 한국은 2024년부터 이 기준을 초과하여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

2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통번역지원사’라고 불린다.

적인 요소로 기능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23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센터에 배치된 통번역 관련 인력은 총 319명이었으나, 그중 전문 통번역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는 통번역사의 전문성 확보와 제도적 인정이 시급함을 방증한다. 글로벌 사회에서 효과적인 소통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인력 구조는 지역사회 통번역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개념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어 통번역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제고하고, 다문화사회에서의 상호 이해와 소통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 통번역의 역할과 문제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기존의 ‘통번역지원사’라는 개념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번역지원사’는 주로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가 동일한 집단 내 타 이민자에게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정착해 왔다(선봉규 2024 : 33).

이러한 역할은 이주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지만, 점차 확대되고 전문화되는 지역사회 통번역의 요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통번역사의 전문성과 독립적인 역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3 시장 요구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부터 동행 의료통역지원단을 통해 의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4 한국 내에서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인력은 전문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보)를 3등급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제도적 모델을 가지고 있다(임형재·부티투안 2018: 137).

서 지역사회 통번역사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1)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역할과 범주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역할은 단순한 언어 중재자를 넘어, 문화적 중재자이자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주체로 확장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공공행정, 법률, 의료, 교육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지원사’가 아닌, 전문성과 직업적 정체성을 갖춘 ‘지역사회 통번역사’라는 명칭의 통일과 제도적 인정이 요청된다.

기존 연구들은 지역사회 통역에 상대적으로 집중해 왔으며, 번역 서비스의 중요성은 후순위로 다루어져 왔다(류현주 2006; 장애리 2014).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문서, 법률 서류, 의료 정보, 교육 자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번역 수요가 급증하면서,⁵ 번역 또한 지역사회 내 필수적인 통번역 활동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통번역사는 단순한 통역 제공자를 넘어, 다문화 구성원과 제도 사이를 연결하는 사회적 중재자로서 그 역할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번역사’를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부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통역과 번역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번역의 활동 범주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이용과 사회복지제도 접근에 관련된 ‘공공 통번역’, 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통번역’, 수사나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법 통번역’ 등으로 대별된다.⁶

5 2018년 이전까지 번역 작업은 전체 통번역 서비스에서 5.5%에서 6.2%를 차지했으나,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변동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2018년 번역 작업 비율은 8.1%, 2020년에는 7.5%를 기록하였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4).

6 이지은 외(2014a: 178)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통번역의 범위는 공공 통번역, 의료 통역, 사법 통역으로 분류된다.

임형재와 부티투안(2018: 122)에서는 이런 특징에 대해 지역사회 통번역의 활동 영역이 광범위하며,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통번역사에게 단순한 언어 능력뿐 아니라, 출신국에서 접해 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지식까지 포함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통번역사는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통번역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는 곧 체계적인 통번역 교육의 필요성으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은 한국 사회가 다언어·다문화 사회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한 사회 기반 인프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다.

2) 한국어 통번역 교육 시스템의 요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통번역사는 언어적 중재자를 넘어서 문화적, 제도적 맥락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전문직으로 기능해야 하기에, 이들의 교육은 단순한 언어 능력 배양을 넘어 통번역 기법, 전략, 문화 이해, 특히, 윤리적 책임의식 함양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현재까지 지역사회 통번역과 관련된 교육 연구는 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⁷ 특히 임형재(2016: 137)는 이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과정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커뮤니티 통번역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빠른 증가로 한국어 통번역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기본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홍종명 2022: 568). 실제로 베트남어권 학습자는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통번역 수요가 높은 대표적 집단이다.

7 장애리(2014), 신윤경·장미라(2017), 임선우·윤황(2017), 임형재·부티투안(2018) 등은 통번역지원사 또는 다문화가정 지원 인력으로서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나, 전문적인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의 체계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허은혜(2023: 174)가 지적하듯,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은 매우 제한적이며, 교육 목표와 내용, 운영 체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도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의료통역 분야에서 한-베 교육과정과 같은 경우는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 필요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의 부족, 취업 연계의 어려움, 자격증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Luu Thi Sinh 2023: 137-138).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역사회 통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즉, 언어적 지식은 물론, 상황별 통번역전략, 문화적 중재 능력, 통번역 윤리 등 전문적인 소양이 통합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윤리적 책임감과 실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직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통번역사의 능력 인증 체계의 문제점

(1) 한국어 통번역 교육의 문제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활동 전문화에 발맞추어 체계적인 한국어 통번역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며, 이는 곧 통번역사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 인증 체계로도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의 통번역 교육과 인증 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미비점을 안고 있다.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은 대체로 유학생이나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통번역사를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로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인력과 커리큘럼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200시간 교

육과정이 존재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통번역 양성과정은 30시간 내외, 심지어 불과 24시간 이내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깊이나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⁸ 더욱이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은 실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학습자들이 통번역의 개념과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실무 중심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경우 한국 정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모국어 노출 기회가 줄어들어 모국어 능력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중 해당 언어권의 전문 강사가 부족, 통번역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국어 교육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어, 학습자들의 통번역 실무에 필요한 종합적인 언어적 능력 배양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통번역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론과 실습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학습자 언어권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⁹

(2) 통번역 능력인증 체계의 문제점

통번역 교육의 구조적 문제는 자연스럽게 통번역 능력 인증 체계의 한계로 이어진다. 인증 시험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그 준비를 위한 기반 교육이 충분치 않다면, 시험 자체의 실효성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지역사회 통번역사나 예비 통번역사는 통번역 지식, 실무 경험, 언어권별 실습 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해 능력 인증 시험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8 경상북도가족센터에서는 2024년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통번역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였다. 이 과정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통번역 교육과정 중 유일하게 통번역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과정이다. 지역과 시간에 따라 편성된 전체 과정 목록은 아니지만, 2024년 상반기에 진행된 교육과정들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다.

2024년 한국 지역사회 통번역 교육과정	
교육과정명	교육 시간
2024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의료통번역과정	30시간
2024 의료통역사 인력풀 지원사업 의료통역 교육과정	24시간
2024 법정통번역인 양성교육	21시간

- 9 실제 통번역 교육과정에서 이주민의 언어능력은 한국어 능력을 넘어 모어 능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의료 통번역의 경우, 민간자격 외에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이 시험은 의료 현장에서의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되며, 평가 항목에는 국제문화, 의료 시스템, 기초의학 지식, 의료통역 시나리오 대응력, 전문 문서 해석 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같은 시험이 의료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 제한적 인력 개발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실제 교육과 현장 수요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사법 분야의 통번역 능력 인증은 상대적으로 늦게 제도화되었으나 외국인 범죄 관련 사례의 증가와 함께 법률 통역의 정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통번역사 자격에 대한 인증 제도가 시행 중이다. 법정 통번역인 인증 평가 항목은 법률 기초 지식, 통번역사의 윤리와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통번역 능력 등을 포함하며, 특히 전달 충실도, 도착어의 문법적 정확성, 발음과 억양 등 언어 전달력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정철자 외 2022).

그러나 예비 통번역사나 활동 중인 이주민 배경의 통번역사가 통번역 관련 전문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평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특히 통번역 관련 평가는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서 통역과 번역에 대한 고도의 수행능력과 실무역량, 그리고 통번역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통번역사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접근 없이는 전문적인 통번역 평가를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의 최근 4년간 합격자 수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표 1.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언어권별 합격 결과

(단위: 명)

년도	총합격자	중국어	영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2021	52	11	25	5	-	7	1	3
2022	58	14	31	7	1	2	2	1
2023	66	18	33	8	-	1	3	3
2024	72	12	43	6	-	3	3	5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어와 영어 등 주요 언어권을 제외한 소수 언어권(베트남어, 몽골어, 아랍어 등)의 합격자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통계는 특정 언어권에서의 전문 의료통번역 인력의 부족 현실을 명확히 드러내며, 해당 언어권 통번역사를 위한 특화된 교육 체계와 교육과정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사법 분야의 경우도 상황은 유사하다.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는 2023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며,¹⁰ 응시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2. 2019~2023년 법정통번역인 인증평가 결과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응시자		416	451	428	606
최종 선발자	인증자11	82	130	115	65
	준인증자12	102	121	89	75
	인증비율(%)	19.71	28.82	26.87	10.73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019년 416명에서 시작하여, 2021년 451명, 2022년 428명, 그리고 2023년에는 60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사법(법정) 통번역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지원율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합격률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권별 인증자 수를 보면 중국어와 영어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보인 반면, 베트남어는 큰 변동 폭을 보였다. 2019년 7명이었던 베트남어 인증자는 2021년에는 49명으로 급증하였으나, 2023년에는 2명으로 급감하였다.

10 법정통역은 5회차까지 실시하였으나 2024년 시험 통계는 발췌하지 않았다.

11 인증은 총점 80점 이상인 응시자(합격 기준 충족).

12 준인증은 총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응시자(합격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으나 해당 언어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자격이 부여된다.

표 3. 2019~2023년 언어권별 법정통번역인 인증자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언어	82	130	115	65
중국어	38	35	25	22
영어	6	13	8	9
일본어	16	6	4	5
아랍어	3	6	2	3
러시아어	3	17	4	4
몽골어	2	2	4	5
베트남어	7	49	55	2
기타	7	2	13	15

이와 같은 급격한 감소는 시험의 난이도 상승 또는 평가 기준의 엄격화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며, 동시에 체계적인 통번역 훈련 없이 시험에 응시한 이들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도 크다.

3. 지역사회 통번역의 수용성과 전문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문적인 교육 체계와 능력 인증 제도의 미비가 현장의 질적 제고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다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활동 중인 베트남어권 지역사회 통번역사와 한국어 번역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용과 인식에 관한 조사(설문/FGI)를 실시하였다.¹³ 조사를 참여한 대상자들의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3 본 조사는 2024년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베트남 출신 통번역사 10명과, A 대학에서 한국어 번역을 전공 중인 대학원생 5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 및 FGI 면담은 대면 및 서면 인터뷰 방식으로 병행되었으며, 통번역 실무 경험, 교육 이수 여부, 한국어 능력, 교육 경로 등을 중심으로 기본 정보를 수집하였다.

표 4. 조사 참여 대상자의 기본 사항

구분	지역사회 통번역사	대학원생
학력	대졸(1), 고졸(7), 중학교(2)	박사(1), 석사(4)
한국에서 거주 기간	10년 이상(10)	10년 이상(2), 5년 이하(3)
한국어 능력(TOPIK 기준)	6급(2), 5급(6), 4급(2)	6급(5)
한국어 학습 방법	정규과정(1), 일반과정14(6), 독학(3)	정규과정(5)
통번역 경력	5년 이상(6), 5년 이하(4)	5년 이상(2), 5년 이하(3)
정규 통번역 교육과정 참여 여부	참여 없음(10)	참여 있음(5)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번역사 응답자 전원은 정규 통번역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결혼 이민자로서 한국에 정착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일반 한국어 교육과정에 참여하거나 독학을 통해 언어 능력을 습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TOPIK 4~5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통번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¹⁵

반면, 대학원생들은 모두 정규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통번역 이론과 실무 교육도 병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과 통번역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전문 통번역사로서 필요한 윤리, 전략, 실무 역량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체계적인 교육 지원 없이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통번역 지식에 대한 수용성

앞서 지역사회 통번역사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확인하였듯, 두 집단 간에는 통번역 교육 경험과 언어 역량뿐 아니라 통번역에 대한 지식

14 본 연구에서는 정규 한국어 교육과정 외에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일반과정으로 본다.

15 한국어 능력 평가 기준을 참조(<https://www.topik.go.kr/>).

수용 태도와 전략적 접근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역사회 통번역사는 통번역의 개념, 번역전략, 텍스트 분석 능력 등 전문지식의 습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통번역을 수행함에 있어 단순한 직역 중심의 접근이 두드러졌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정규 통번역 교육을 이수한 대학원생들은 다양한 번역전략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번역 수행 전 텍스트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독자와 목적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 통번역사는 응답자의 절반(50%)이 직역(Word-for-word translation) 전략을 주로 활용한다고 응답하였고, 30%는 직역과 의역 전략을 혼합 사용하며, 나머지 20%만이 간접 번역전략을 중심으로 작업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원문의 의미와 맥락보다는 개별 단어의 일대일 대응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반영하며, 결과적으로 번역문의 자연스러움과 전달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텍스트 유형 분석의 부재에서도 확인된다. 지역사회 통번역사 응답자 중 50%는 번역 시 텍스트의 유형과 목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번역을 수행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출발어의 형식을 유지하려는 방식이 30%, 도착어 독자와 형식을 고려하는 번역 방식은 20%에 불과하였다. 반면, 대학원생들은 텍스트 유형의 기능과 독자의 기대를 중시하며, 목적론적 접근에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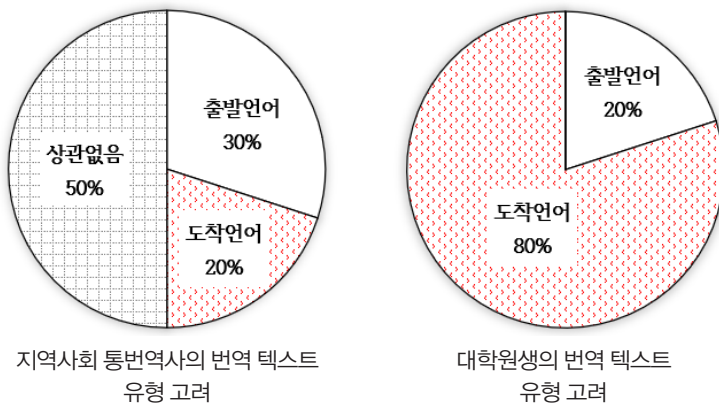


그림 1. 통번역사의 번역 텍스트 유형 고려에 응답

한 전략 수립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라이스(Reiß)의 텍스트 유형론에 기반한 번역 전략 선택이 현장에서는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상빈 2010).

한국어와 베트남어 간 문법 구조와 텍스트 형식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유형 분석 없는 일관적 번역은 전달 목적의 왜곡과 의미 누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설명문이나 학술 텍스트는 직역 전략이 적절할 수 있으나, 문학이나 광고 텍스트처럼 감정적 호소가 중요한 경우에는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의역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법률문서와 같은 공식 문서는 용어의 일관성과 형식을 유지하는 절차적 전략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통번역사가 직면하는 통역이나 번역상의 구체적인 어려움도 교육의 부재와 전략적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통역 윤리와 기술 부족’(36%)과 ‘전문용어 해석의 어려움’(32%)이 지적되었으며, ‘사투리와 억양’(23%)과 ‘문화 차이 고려’(9%)가 뒤를 이었다. 이는 통역 수행 시 언어적 능력뿐 아니라 윤리적 기준, 지역적 언어 특성,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번역 작업에서의 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전문용어 해석’(39%)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으며, 이어 ‘번역 윤리와 전략 부족’(28%), ‘문장 구성 능력 부족’(22%), ‘문화 차이 고려’(11%)가 응답되었다. 이는 전문 분야별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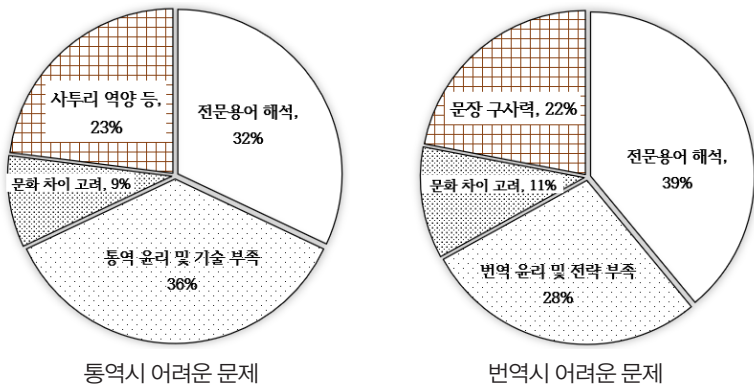


그림 2. 통번역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응답

어 사용, 도착어의 자연스러운 표현, 문화적 전환 능력 등이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실제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통번역이 언어 능력에 기반하고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이론 교육과 수행 훈련을 통해서만 실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라는 것이다.

2) 통번역에서 문화 차이에 대한 중재 능력

통번역 활동에서 문화적 차이는 언어 전달만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통번역의 핵심은 단순한 언어 치환을 넘어 발화자 또는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적 배경에 따른 오해나 불일치를 조정하는 ‘문화 중재’의 기능은 필수적이다. 특히 관용구, 비유, 문화 고유 표현은 원문 그대로 번역될 경우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수용자의 이해도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정규 통번역 과정을 이수한 대학원생들은 문화 차이를 고려한 다양한 전략을 실무에 적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텍스트 유형, 수용자, 상황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역과 의역, 문화 전환 전략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지역사회 통번역사는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으나 이를 실무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부족하였다. 응답자의 절반은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지만 적용 방법이나 기준을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사례 1).

예를 들어, ‘모집’이라는 한국어 표현을 베트남어로 ‘tuyển dụng’으로 번역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모집’의 포괄적인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학생 모집이라는 맥락에서는 ‘tuyển sinh’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유사한 단어라도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의미와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적절하지 않은 번역은 의미 왜곡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통번역사가 단순 어휘 대응을 넘는 의미 조정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의

미한다. 언어마다 의미의 범위, 맥락, 문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 통번역사는 목표 언어의 문화와 담화 규범을 이해하고 수용자 중심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 중재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 훈련과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이 지역사회 통번역사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필수 요소이다.

3) 통번역사의 윤리 책임에 대한 태도

통번역사는 언어 전달자이자 동시에 윤리적 책임을 지닌 전문가이다. 특히 지역사회 통번역은 의료, 사법, 행정 등 민감한 영역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윤리 의식은 통번역사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다. 여기에서는 중립성, 비밀 보장, 저작권 인식이라는 세 가지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윤리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원생들은 통번역 교육을 이수한 전문 통번역사로서 이론적 지식과 함께 통번역 윤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 수행 시 윤리적 책임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경우 이러한 윤리 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아 윤리적 판단과 책임 수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우선 중립성 측면에서, 다수의 지역사회 통번역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감정적 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에 관련된 FGI 인터뷰 응답이다.

“통역을 할 때 저희 나라 사람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사례 2).

“가장 폭력을 당한 이민자로부터 통역 요청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편이 돼버리더라고요.”(사례 3).

“법정 통역에서는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사례 4).

이러한 사례는 윤리 교육의 부재가 통번역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역사는 발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특히 사법 통역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중립성의 유지는 사법적 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통번역사들은 저작권 인식에서도 낮은 이해 수준을 보였다. 원문이 저작권 보호 대상일 경우, 원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 윤리이다. 그러나 일부 통번역사는 동의 없이 문서를 번역하거나 2차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법적 분쟁 위험뿐 아니라 통번역사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중립성, 저작권, 전문성 등은 개인적 태도를 넘어 교육과 제도적 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내면화되어야 할 윤리적 자질이다. 윤리적 판단력과 실천 능력을 갖춘 통번역사의 양성은 단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넘어서, 다문화 사회 속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 통번역 교육과 제도개선 전략

1) 실무기반 맞춤형 통번역 교육과정 설계

지역사회 통번역사 교육은 여전히 단기성과 이론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 실무 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류현주 2006; 유선희 2020). 교육 대상 언어도 영어, 중국어에 집중되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등 실질 수요가 높은 언어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통번역사의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 확보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실무 중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설계를 제안한다. 다언어·다문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본 맞춤형 통번역 교육과정은 단순히 결혼이주민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언어적 자원을 가진 이중언어 화자라면 누구나 전문 통번역사로 성장할 수 있는 직업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 통번역사는 단순 언어전달자에 그치지 않고, 현장 대응력, 문화중재 능력, 전문 분야 언어 숙련도를 겸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설계 초기부터 수요자 중심의 직무 분석과 전문가 협의 운영이 요구된다(신윤경·장미라 2017).

표 5. 맞춤형 통번역 교육과정 설계 개요

구성 요소	내용 요약
교육 목적	분야별 실무 지식, 고급 언어기술, 문화중재 능력을 갖춘 통번역사 양성
교육 설계 방식	통번역 교육 전문가 + 현장 실무자 협업, 수요자 맞춤형 요구 분석 기반
교육 내용 구성	의료, 법률, 행정 등 분야별 모듈, 시나리오 기반 실습, 사례 분석, 역할극, 시뮬레이션 포함
교수 전략	플립러닝, 블렌디드 러닝 방식 적용 (온라인 이론 + 오프라인 실습 중심 구성)
보충 교육	심화 모듈 선택 수강, 1:1 멘토링, 자기주도적 학습 경로 운영

실습 중심 교육은 특히 의료나 법률 등 분야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역할극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유선희(2020: 115)는 이러한 실습형 교육이 학습자의 참여도와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플립러닝과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여 이론은 온라인에서 사전 학습하고, 대면 수업에서는 실습과 피드백에 집중하는 방식은 교육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이지은 외 2014b: 221). 교육생의 수준과 수요에 따라 심화 모듈을 선택 수강하도록 하고, 필요 시 1:1 멘토링을 통해 약점 보완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학습자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 경로 제공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기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6. 교육과정 목표의 기대 효과

항목	세부 내용
교육 목표	정례화된 교육과정 운영, 실습 자료와 평가도구 개발, 온라인 콘텐츠 구축

단기 성과	전문용어 활용 능력 향상, 실무 대응력 증진, 문화중재 능력 강화, 교육생 간 네트워크 형성
중장기 성과	통번역 품질 제고, 서비스 오류 감소, 통번역사의 직업 정체성 확립,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위상 제고

교육 수료자의 사전-사후 역량 비교를 통해 실무 적응력, 전문용어 정확도, 상황 대응력 등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확인될 수 있으며, 학습 공동체 형성은 정서적 지지와 경험 공유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교육과정 설계는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실무 적응력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들을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전문직업인으로 재정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국가공인 통번역 능력 인증체계의 도입

현재 한국의 지역사회 통번역사는 민간기관의 단기 교육 수료나 자율적 내부 평가만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통번역사의 전문성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 관리에 구조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정철자 외(2020; 2022)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자격시험의 주기, 평가 기준, 자격의 실효성 측면에서 국가적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직무 역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통번역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공인 통번역 능력 인증 체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는 통번역사의 직업적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용자 측의 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제도 설계는 미국 ATA, 호주 NAATI, 중국 CATTI 등 국제 인증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김지은 2020: 186).¹⁶

16 미국의 ATA(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영국의 ITI(Institute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호주의 NAATI(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중국의 CATTI(China Accreditation Test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등

표 7. 국가 공인 통번역 능력 인증 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세부 내용
통합 구조	의료, 법률, 행정 등 분야별 통합 인증 체계 설계, 민간 자격과의 연계, 통합 필요
평가 방식	필기시험(번역 능력) + 실기시험(순차통역, 시역, 상황 시뮬레이션 등) 병행 평가
인증 사후 관리	자격 취득 후 정기 재교육과 재인증 제도 도입, 지속적 역량 관리 체계 구축
국제 벤치마킹	미국 ATA, 호주 NAATI, 중국 CATTI 등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화 적용

이 인증 체계는 직무 적합성 중심의 다차원적 평가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통번역 상황을 반영한 실기시험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자격 취득 후에도 보수교육과 재인증 제도를 통해 역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갱신되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통번역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제도 도입의 단기적 효과로는 인증 통번역사의 공급 확대와 활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공공기관과 다문화 지원기관에서 인증 통번역사를 우선 채용하고, 수당 지급, 고용 안정성 보장 등 제도적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경우 인증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자격 보유자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도 증가할 것이다.

표 8. 국가 공인 인증제 도입 효과

성과 유형	기대 효과
단기 효과	인증 통번역사 확대, 공공기관 우선 활용, 서비스 품질과 신뢰도 향상
중장기 효과	전문직 위상 확립, 통번역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 윤리 관리 체계화

장기적으로는 통번역사의 경력과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자격의 이력 관리, 재교육 추적, 윤리적 책임 소재 규명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임형재·부티투안(2018)이 제안한 바와 같이, '자격-배치-보수-재교육'의 통합 구조는 지역사회 통번역사를 전문 인력으로 제도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국가 공인 인증제의 도입은 지역사회 통번역사를 전문직업군으로

정착시키는 핵심 전략이며, 통번역 교육, 현장 실무, 인력 관리, 공공 서비스 정책을 연결하는 구조적 기반이 될 것이다.

3) AI시대, 디지털 통번역 역량의 강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통번역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신경망 기계번역(NMT), 자동 음성인식, 실시간 번역 앱 등은 통번역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등장으로 통번역사의 역할도 빠르게 재정립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통번역사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역량 교육의 체계적 부재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순미 2018; 이유정 2023).

AI 시대에 통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서며, 기계번역 결과를 교정하는 능력, CAT(computer-assisted translation) 도구 활용, 데이터 기반 용어관리, 원격 플랫폼 사용 등 디지털 리터러시 전반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통번역 교육과정에도 기술 중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표 9. 디지털 통번역 교육의 역량 영역

역량 영역	주요 내용
기계번역 후편집	Google Translate, DeepL GPT, Ggmini 등 AI 번역 결과의 문맥·문체 교정 능력 습득
CAT 도구 활용	Trados 등 CAT 툴 사용법, 번역 메모리 관리, 용어집 구축·활용 능력
원격 통역 대응력	Zoom, 전화통역, 다국어 챗봇 등의 플랫폼 사용법, 멀티모달 통역 훈련
디지털 윤리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사회적 편견 감지하고 조정하는 등 윤리적 판단력 강화

교육 운영 방식으로는 실습 중심의 기술 훈련과 더불어, 디지털 도구의 장단점 이해, AI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 함양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 능력은 기계번역 결과의 문맥 오류, 문화적 부적합을 조정하는 통번역사의 전문적 개입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이유정(2023: 108)

은 AI 번역의 한계 사례를 분석하며, 사람 통번역사의 판단력과 언어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표 10. 디지털 통번역 역량 교육의 구성 요소와 기대 효과

항목	세부 내용
교육 내용	MTPE 실습, CAT 툴 활용, 플랫폼 통역, 디지털 윤리
교수 전략	실습 중심 훈련, 사례 기반 토론, 비판적 AI 분석, 기술 워크숍
단기 성과	번역 생산성 증가, 통역 정확도 향상, AI 도구 활용 자신감 제고
중장기 성과	기술-인간 협업 체계 정착, 통번역사 역할 다변화, 데이터 자산화

〈표 10〉에서 제안된 교육과정에서는 CAT 툴 활용법과 데이터 자산 관리 방법을 실습 위주로 학습하며, 다문화 공공서비스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전자용어 집, 번역 메모리 등을 구축하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화상회의, 원격 통역, 영상 자막 번역 등의 실무 훈련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통번역 수행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통번역사의 번역 속도와 품질이 향상되고, 디지털 도구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AI와 협업하는 경험을 통해 통번역사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품질 관리자’, ‘문화 해석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통번역사가 축적한 용어 자산, 번역 메모리, 오류 분석 자료 등이 국가 언어 자원으로 활용되며, 이는 AI 번역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Luu Thi Sinh(2023)은 베트남어 의료 통역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통해,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이 통번역사의 지속가능한 역량으로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결국 통번역사는 과학 기술에 의한 대체 대상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고 보완하는 전략적 협업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결론

글로벌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지역사회 통번역사는 단순한 언어 전달자를 넘어, 문화적 중재자이자 사회 통합의 핵심 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들의 전문성과 직업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교육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통번역지원사'라는 명칭 아래 그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통번역사의 위상을 저해하고, 통번역 서비스의 질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교육 평가 체계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통번역사에게 요구되는 언어 능력, 전략, 문화 감수성, 윤리 의식 등 핵심 역량에 대한 교육 공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자격 시험의 저조한 성과와 현장 전문성의 미비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현장성과 실무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번역 교육과정이 시급하다. 교육과정은 분야별 모듈화, 시나리오 기반 실습, 전략 훈련과 같은 실천적 구성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국가 공인 통번역 능력 인증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일관된 평가 기준과 실기 중심의 자격검정, 자격 취득 후 보수교육과 재인증 등을 포함하여 통번역사의 전문성과 고용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통번역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MTPE, CAT 도구 활용, 원격 통역 기술, 디지털 윤리 교육 등을 포함한 기술 기반 교육을 통해 통번역사는 기술과 협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베트남어권 지역사회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제안된 교육과 제도개선 방향은 다른 언어권에도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특히 통번역사를 전문직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이론적이고 실천적 토대를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그 의의를 갖는다.

물론 본 연구는 기초 연구로서 실제 프로그램 설계나 언어권별 콘텐츠 개발, 정책 실행 차원까지는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실험

과 평가, 인증 제도의 법제화, 언어권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한국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다언어 사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통번역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연구와 정책적 지원은 향후 더욱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교신: 황완(한국외국어대학교 KFLT전공 박사과정)(oanh0420@naver.com)

Correspondence: Bach Thi Hoang Oanh(Ph.D, KFLT Maj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anh0420@naver.com)

2025.04.18 접수, 2025.04.29 심사, 2025.05.16 게재확정

참고문헌

- 김순미, 2018, 한국형 의료통역 연구-의료관광통역과 다문화 의료통역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9(2), 3-37.
- 김지은, 2020, 법정 통번역 품질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고찰-국내 및 중국어권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90권, 177-200.
- 류현주, 2006, 커뮤니티통역의 전문성 제고 방안, 번역학연구, 7(1), 87-103.
- 선봉규, 2024, 국내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지원사의 의료통역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17(2), 27-49.
- 신윤경·장미라, 2017, 결혼 이민 통번역사의 역량 고찰-통번역 인력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7(11), 116-125.
- 유선희, 2020, 한국 의료통역사 양성 과정에 대한 고찰-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영어 통역 수업 학생들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2(1), 105-134.
- 이상빈, 2010, 텍스트 유형론에 기반을 둔 학부번역수업의 운영 사례연구: K.Reiss의 유형론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3), 167-196.
- 이유정, 2023, 현대시 인공지능(AI) 번역의 오류 양상 연구, 문화와 융합, 45(10), 97-110.
- 이지은 외, 2014a,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통해 본 지역사회통역 사례연구, 번역학 연구, 15(3), 177-210.
- 이지은 외, 2014b, 커뮤니티 통역 교육 사례 연구-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2(3), 155-80.
- 임선우·윤황, 201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특성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

-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8-3), 639-659.
- 임형재, 2016,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기초연구, 중한언어문화연구, 10, 125-155.
- 임형재·송은정, 2016,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을 중한언어문화연구위한 교육과정 평가, 언어와 문화, 12(3), 177-203.
- 임형재·부티투안, 2018, 국내 커뮤니티 통번역사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정책 검토-베트남 통번역 지원 인력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8(1), 117-141.
- 임형재 외, 202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통번역학의 이해, 하우출판사.
- 장애리, 2014,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통역-지역사회통역사로서의 결혼이민여성-잠재력과 한계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1), 211-38.
- 정철자·유한내, 2020, 법정통번역 국가전문자격제도 도입 방안 연구, 번역학 연구, 21(2), 285-309.
- 정철자 외, 2022,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평가시험 시행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2022-07.
- 허은혜, 202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20(2), 153-174.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4, 2023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홍종명, 2022, 해외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 개발 기초연구, 아시아연구, 25(4), 123-138.
- Luu, Thi Sinh, 2023, STUDY OF TRAINING SITUATION OF KOREAN-VIETNAMESE MEDICAL INTERPRETERS IN KOREA, 베트남 연구, 21(2), 121-145.

Improving Institutional Support for Korean Languag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Training in Local Communities: Focusing on FGI Analysis of Field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Hyung Jae Lim* · Bach Thi Hoang Oanh**

Abstract This study redefines the concept of community interpreter translators in Korea and explores their roles amid increasing societal demands for Korea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I) education. Using a mixed-methods approach, it examines current curricula and certification systems and includes interviews with native Vietnamese-speaking interpreters. The findings reveal a lack of structured training and generally low performance in competence assessment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framework that includes conceptual clarifi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evaluation methods, and capacity building. Additionally,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tegrating AI-related training to enhance practical skills. Although the focus is on the Vietnamese-speaking community, the findings offer valuable insights applicable to interpreters from various language backgrounds.

Keyword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Community Interpreter Translator, T&I Curriculum, T&I Assessment

* First Auth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FLT Major, Professor, hylim@hufs.ac.kr

** Corresponding Auth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FLT Major, Ph.D, oanh0420@naver.com